

영국의 지역 단위 박탈 수준 측정 현황과 활용

English Indices of Multiple Deprivation: Review and Implications

김동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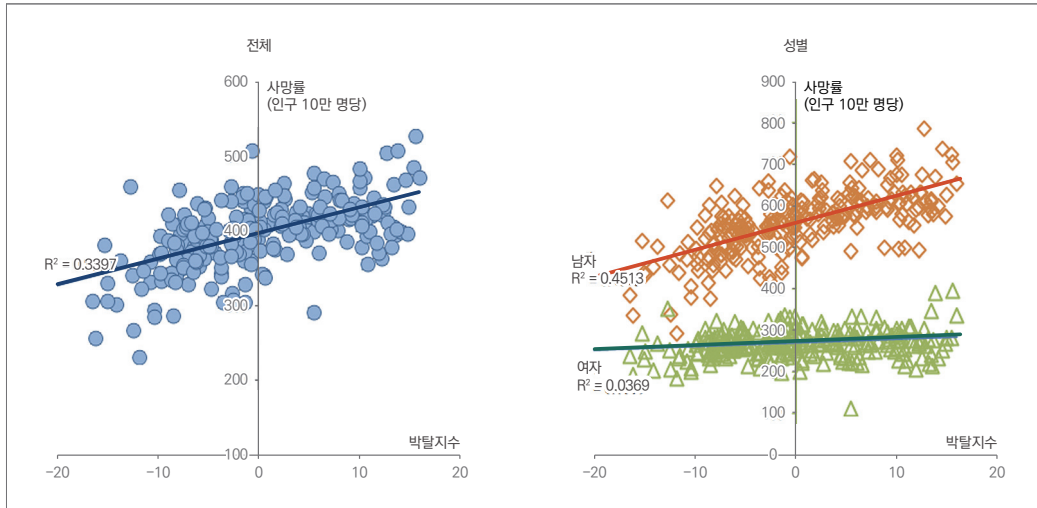
박탈지수는 지역의 박탈 혹은 결핍 수준을 지수화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박탈 정도는 빈곤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정책적 중요성이 대두하였다. 영국은 박탈지수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여 지역 간의 상대적 박탈 정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자원 배분의 기준을 '필요'에 두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원 배분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박탈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 수준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건강 수준의 격차가 인구집단 간에만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있다.

2013~2015년 기간 동안 시·군·구별 총사망률과 지역박탈지수를 비교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지역박탈지수를 분위별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에도 지역박탈 정도가 가장 심한 1분위 지역의 총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12.2명이었던 반면 지역박탈 정도가 덜한 4분위 지역의 총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1.3명으로 두 집단 간에 인구 10만 명당 70.9명(남자 135.6명, 여자 18.5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진, 이정아, 2017, p. 5).

그림 1. 지역박탈에 따른 총사망률(10만 명당, 2013-2015년)



자료: 김동진, 이정아. (2017).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을 격차와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0호, p. 5.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간에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지역의 박탈 수준과 사망률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역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박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득뿐 아니라 교육,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복합적,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빈곤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이슈 각각에 대한 대응이 아닌 지역 기반(area-based) 공공자원 배분이라는 원칙하에 낙후 지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총체적으로 더 빈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공공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대표적인 작업이 박탈지수 산출이다(이영아, 2012, p. 32).

이 글에서는 영국의 지역박탈지수 산출 현황과 정책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지역박탈지수 개념

박탈(deprivation)이란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불이익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Townsend, 1987). 특히 Townsend(1987)는 박탈을 물질적 박탈과 사회적 박탈로 구분한 바 있는데 여기서 물질이란 장비, 재화, 서비스, 자원, 편의시설, 물리적 환경, 거주 지역 등을 의미하고, 사회는 사회나 사회의 하부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역할, 관계, 기능, 관습, 권리와 책임 등을 의미한다(추장민 등, 2007, p. 98). 이에 따라 박탈지수는 지역의 박탈 혹은 결핍 정도를 지수화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역박탈지수와 관련한 초기 연구는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박탈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지역 단위 박탈지수를 산출하여 왔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a, p. 2). 특히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영국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박탈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결과물이 2000년 발표된 종합박탈지수(Indices for Multiple Deprivation)이다.

지역 단위 조사의 경우 지역별로 인구구성이 다르고 행정구역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조사 및 비교가 어렵다. 종종 거주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분모 수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이영아, 2012, p. 33).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박탈지수는 영국 통계청의 통계조사단위지역(LSOA: Lower layer Super Output Area)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LSOA는 대략 인구 1500명 혹은 650가구의 규모로 설정된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a, p. 27). 영국에서는 인구센서스 조사 시에도 이 지역 단위를 활용하고 있다.

3. 영국의 지역박탈지수 구성

영국의 종합박탈지수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중적인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영역별로 세부 지표가 구성되어 있는데, 2015년 종합박탈지수는 소득, 고용, 건강박탈과 장애, 교육 및 기술·훈련, 범죄, 주택 및 서비스, 주거 환경(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b, pp. 14-18)의 7개 영역에서 37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영국 종합박탈지수(2015)에 포함된 영역 및 가중치

영역	세부 지표	가중치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보조를 받는 가구의 성인 및 아동 - 구직 수당을 받는 가구의 성인 및 아동 - 고용 및 지원 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받는 가구의 성인 및 아동 -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을 받는 가구의 성인 및 아동 - 근로장려세제(Working Tax Credit)와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를 받으면서, 수입이 평균 주거비용의 60%에 못 미치는 가구의 성인 및 아동 - 생계비 지원, 숙소 지원을 받는 난민 	22.5%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수당 수급자(남: 18~64세, 여: 18~59세, 이하 동일) - 고용 및 지원 수당 수급자 - 무능력 급여 수급자 - 중증 장애 수당 수급자 - 돌봄 수당 수급자 	22.5%
교육·기술· 직업훈련	<p>아동 청소년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y Stage 2 성취도: 학생들의 Key Stage 2 시험 평균 점수 - Key Stage 4 성취도: 학생들의 Key Stage 4 시험 평균 점수 - 중·고등학교 결석률 - 학교에 다니지 않는 16세 이상 청소년 비율 -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지 않는 21세 이하 청년 비율 <p>성인 기술·직업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남자: 25~64세, 여자: 25~59세) -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성인(남자: 25~64세, 여자: 25~59세) 	13.5%
건강 및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수명 손실 연수(YLL): 성·연령 보정 - 비교 가능한 질병 및 장애 발생률: 성·연령 보정 - 급성 이환율: 성·연령 보정 응급 입원을 - 기분장애, 불안장애를 가진 성인의 비율 	13.5%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인구 천 명당 폭력 사건 발생 수 - 가택침입: 인구 천 명당 가택침입 사건 발생 수 - 절도: 인구 천 명당 절도 사건 발생 수 - 범죄 피해: 인구 천 명당 범죄 피해 발생 수 	9.3%
주택 및 서비스	<p>지리적 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체국까지의 거리 -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 일반 가게나 슈퍼마켓까지의 거리 - 의료기관(GP)까지의 거리 <p>포괄적 장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과밀도: 주거 기준 이하의 주거 공간을 가진 가구 비율 - 홀리스: 홀리스 주거 지원 수용률 - 주택 구입 능력: 주택을 구입하거나 렌트하기 어려운 주민 	9.3%
주거 환경	<p>실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주택 - 적정 주거 기준 이하의 열악한 환경을 가진 주택 <p>실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4가지 대기오염물질 측정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 수 	9.3%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b).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5. pp. 14-18.

영국 종합박탈지수의 지표 영역과 세부 지표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더욱 적절한 지표로 수정되고 있다. 지표 영역의 경우 2000년에는 소득, 고용, 건강, 교육·기술·훈련, 주택, 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등 6가지 영역이었으나 2004년부터는 주택과 서비스 접근성이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지고 주거 환경과 범죄 영역이 추가되어 현재와 같이 7개 영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2. 영국 종합박탈지수의 지표 영역 변화

2000년	2004년	2007년	2010년
소득	소득	소득	소득
고용	고용	고용	고용
건강	건강	건강	건강
교육·기술·훈련	교육·기술·훈련	교육·기술·훈련	교육·기술·훈련
주택	-	-	-
서비스 접근성	-	-	-
-	주택과 서비스 장벽	주택과 서비스 장벽	주거와 서비스 장벽
-	주거 환경	주거 환경	주거 환경
-	범죄	범죄	범죄

자료: 1)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0). Indices of Deprivation 2000. p. 4.

2)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4).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04. p. 14.

3)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7).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07. p. 10.

4)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1).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0. p. 16.

5) 김동진, 이소영, 기명, 김명희, 김승섭, 김유미 등. (2013).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7. 재인용.

영국의 종합박탈지수 세부 지표는 전통적인 지역박탈지수인 타운센드 지수, 카스테어즈 지수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타운센드 지수는 실업률, 주택 미소유율, 과잉 밀집도 비율, 승용차 미소유율로, 카스테어즈 지수는 남성 실업률, 가구주의 하위 사회계층 비율, 과잉 밀집도 비율, 승용차 미소유율로 구성(김동진 등, 2013, p. 166)되었던 것에 반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세부 지표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박탈지수와 비교할 때, 영국 종합박탈지수 구성 지표의 다양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박탈지수는 대부분 외국의 박탈지수를 부분적으로 변형해 사용한 것인데, 초기 연구에서는 대부분 타운센드 지수 혹은 카스테어즈 지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지표를 구성하였고 이후에는 점차 가구의 취약성

지표가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지표 내외로 구성되어 영국의 종합박탈지수와 비교할 때 지표가 포괄하는 영역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표 3. 국내 선행 연구의 지역박탈지수 구성 지표

구성 요소	정백근 등	손미아	김명희	신호성 등	신영전 등	Choi 등
남성 실업률	○	○	○	○		○
하위 사회계층(육체직업군)	○	○	○	○	○	○
주거 밀집도	○	○				
무주택 소유율	○	○				○
낙후된 주거 환경률				○	○	○
거주시설 부재율		○				
고졸 미만 학력률			○		○	○
기초생활수급자율				○		
자동차 미소유율					○	○
이혼·별거율						○
1인 가구율					○	○
한부모 가구율				○		
여성 가구주율					○	○
노인 인구율					○	○
아파트 미거주율					○	○

자료: 1) 정백근, 정갑열, 김준연, 문옥륜, 이용환, 홍영섭, 윤태호. (2006).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의 물질적 결핍수준과 15-64세 인구 표준화사망비의 관계. 예방의학회지, 39(1), pp. 46-52.

2) 손미아. (2002). 직업, 교육수준 그리고 물질적 결핍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35(1), pp. 76-82.

3) 김명희. 사회경제적 요인과 대사 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다수준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4) 신호성, 이수형, 추정민. (2009). 표준화사망비와 지역결핍지수의 상관관계: 지역사회 통합결핍지수 개발. J Prev Public Health, 42(6), pp. 392-404.

5) 신영전, 윤태호, 김명희, 조홍준, 김미경, 유원섭 등. (2009).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 서울: 보건복지부.

6) Choi, M. H., Cheong K. S., Cho B. M., Hwang I. K., Kim C.H., Kim, M. H., et al. (2011). Deprivation and Mortality at Town Level in Busan, Korea: An Ecological Study.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4(6), pp. 242-248.

7) 김동진, 이소영, 기명, 김명희, 김승섭, 김유미 등. (2013).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2 수정.

4. 영국의 종합박탈지수 산출 및 활용

가. 종합박탈지수 산출

빈곤(poverty)과 박탈(deprivation)의 개념은 혼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도 있다. 빈곤은 흔히 재정적인 자원(financial resources)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고, 박탈은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resources of all kinds)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된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c, p. 11). 이러한 개념에 따라 종합박탈지수는 박탈의 다양

한 측면을 포함하기 위해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고 있다(표 1 참조).

종합박탈지수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c, p. 14). 첫째, 박탈의 개념과 영역을 정의한다. 둘째, 박탈 영역별로 최적화된 세부 지표를 구성한다. 셋째, 지역별 세부 지표값을 계산한다. 영국은 종합박탈지수의 산출 단위가 LSOA로 소지역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지표 계산을 위해 소지역추정법¹⁾을 활용한다. 넷째, 세부 지표값을 합산하여 박탈 영역별 지표값을 계산한다. 다섯째, 박탈 영역별 지표값의 분포를 변환한다. 여섯째, 영역별 지표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지역별 종합박탈지수를 계산한다. 일곱째, 소지역별 종합박탈지수를 광역 지역별로 요약,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박탈지수는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박탈’과 ‘비박탈’의 차이는 지역의 분포로 결정된다. 영국에서는 전국을 3만 2844개 통계조사단위지역으로 나눈 후 지수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종합박탈지수 산출 결과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박탈지수가 지역 단위에서 ‘상대적’ 박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박탈이 매우 심한 지역과 박탈이 덜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지 박탈된 지역과 부유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표 산출 결과, 상대적으로 박탈이 매우 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이 다 박탈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상대적으로 박탈이 덜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이 부유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 종합박탈지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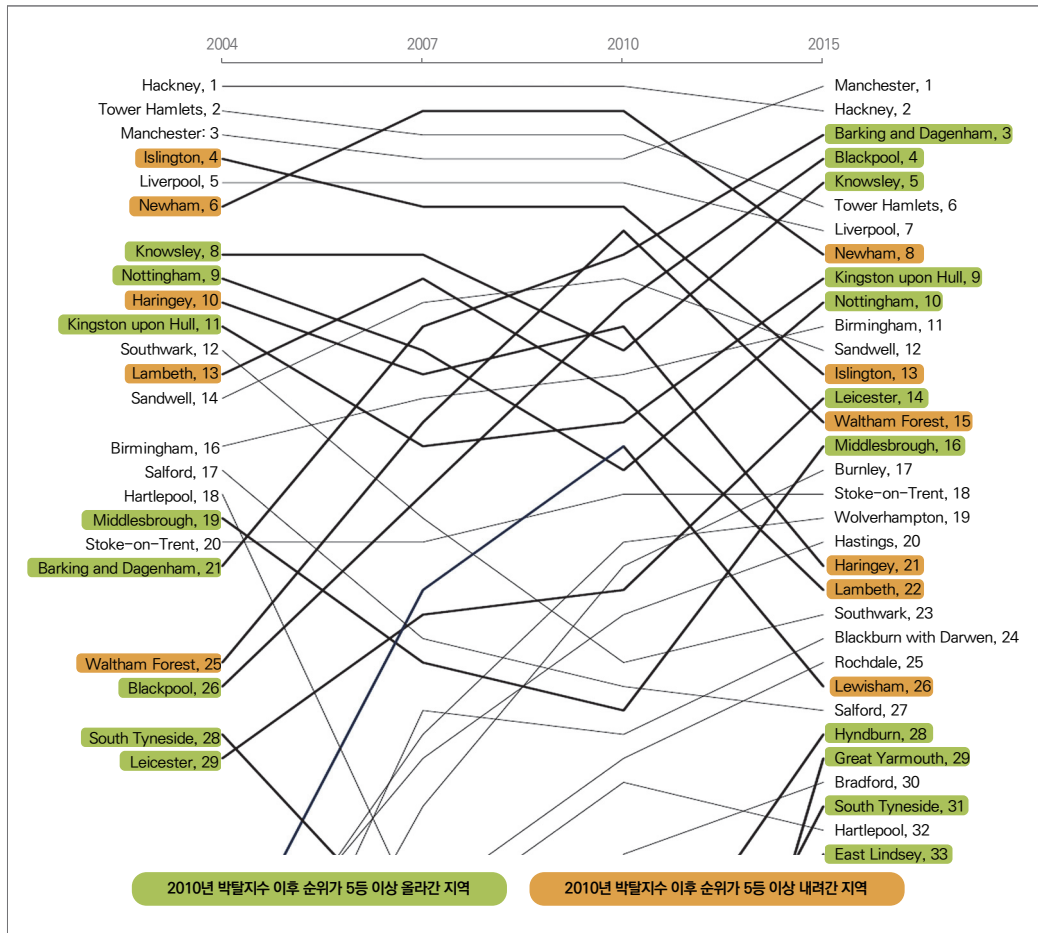
1) 지역의 상대적 박탈 수준 및 추이 파악

[그림 2]는 지역별 박탈지수의 연도별 순위 변화를 보여 준다. 2015년 종합박탈지수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박탈 수준이 가장 심한 10% 지역의 지난 10년 동안의 상대적 박탈 수준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 순위가 상승한 지역과 하락한 지역

1)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15c)에 따르면 ‘축소 추정법(Shrinkage estimation)’을 사용하고 있음.

등을 비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별 순위, 평균 점수, 취약지역(LSOA)의 비율 등 다양한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상대적 박탈 수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림 2. 지역별 박탈지수 순위 변화(2004~2015년)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b).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5. p. 55.

2) 지역 정책·사업의 근거

산출된 지역박탈지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과 자원 배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박탈지수를 활용한 대표적인 정책의 사례로 영국의 지역재생사업과 건강불평등완화사업을 들 수 있다.

영국의 지역재생사업은 낙후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현황에 근거한 배분 방식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낙후 지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이영아, 2009, p. 1). 즉, 영국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을 위해 지역박탈지수를 활용하여 ‘필요’에 근거한 자원 배분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박탈지수는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4년 영국 보건부는 건강 수준이 낮고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을 ‘스피어헤드 그룹(spearhead group)’으로 설정하고, “박탈 수준이 가장 높은 하위 20% 지역(스피어헤드 그룹)과 나머지 지역 간의 출생 시 기대여명 격차를 10% 이상 감소시킬 것”을 정책 목표로 수립한 바 있는데, 박탈지수는 건강불평등완화사업을 추진할 스피어헤드 그룹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때, 스피어헤드 그룹 선정 기준은 남성의 평균수명, 여성의 평균수명, 75세 미만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 75세 미만 연령표준화 심혈관질환 사망률, 지역박탈지수의 다섯 가지 지표 중 세 가지 이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이며, 지역의 건강증진사업 강화를 위한 특별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다(김동진 등, 2013, p. 170).

이후 영국 정부는 지역박탈 수준이 높은 스피어헤드 지역의 조기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해당 지역의 금연서비스와 심혈관질환 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필요 기반 자원 배분 공식(needs-based formula)’ 도입이 대표적인데, 영국 정부는 새로운 자원 배분 방식을 도입하여 스피어헤드 지역을 중심으로 ‘동일한 필요에 따른 동일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하였다(김동진, 2017, pp. 78-79).

아울러 영국 정부는 건강불평등사업 지원팀(Health Inequalities National Support Team)을 구성하여 지역을 순회하며 기술 지원 활동을 펼쳤는데, 방문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지역의 상대적 박탈 순위가 고려되었고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건강불평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김동진, 2017, p. 80).

3) 지역 자원 배분의 효과 측정

박탈지수는 지역 건강불평등완화사업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대리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림 3]은 2010년과 2015년도 박탈지수 분위별 지역 분포인데, 2010년 박탈지수 측정 결과 박탈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3089개 지역 중 2618개 지역은 2015년 결과에서도 박탈 분위에 변화가 없었던 반면, 471개 지역은 2015년도 지역박탈 분위가 9분위 혹은 8분위로 이동하여 박탈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 이들 지역은 지역박탈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자원 배분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박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분포 내에서의 이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박탈 지역에 대한 자원 배분의 효과 혹은 불평등완화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2010~2015년 지역별 박탈지수의 변화

Number of Lower-Layer Super Output Areas	IMD 2015 decile										Total
	Most deprived 10%	10-20 %	20-30 %	30-40 %	40-50 %	50-60 %	60-70 %	70-80 %	80-90 %	Least deprived 10%	
Most deprived 10%	2618	449	22								3089
10-20%	511	2015	575	47	2						3150
20-30%	15	666	1797	624	62	2					3166
30-40	1	25	709	1637	681	116	7				3176
40-50			46	768	1558	683	114	13			3182
50-60			1	86	744	1454	735	149	12	1	3182
60-70				3	110	803	1426	720	119	3	3184
70-80					7	113	783	1515	712	49	3179
80-90						5	122	703	1791	557	3178
Least deprived 10%							4	50	542	2590	3186
Total	3145	3155	3150	3165	3164	3176	3191	3150	3176	3200	31672

주: 2010년 이후 행정지역 변화가 없는 3만 1672개 지역(Lower-layer Super Output Areas)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a).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5. p. 7.

5. 나가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지역박탈지수와 관련해 적지 않은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다. 지역

박탈지수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초기 연구들은 영국의 타운센드 지수, 카스테어즈 지수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일부 변형한 것이었다(손미아, 2002; 김명희, 2002; 정백근 등, 2006). 이보다 최근 연구인 신호성 등(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추가된 지수를 개발한 바 있고, 신영전 등(2009)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지수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의 종합박탈지수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박탈지수 대부분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보완의 여지가 있다. 영국의 종합박탈지수는 7개 영역, 38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지역의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박탈지수는 대부분 10개 내외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영국의 종합박탈지수 수준에는 못 미친다. 세부 지표가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박탈 현황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국형 지역박탈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역박탈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표 활용 목적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는 지역박탈 변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박탈지수가 주는 또 다른 함의는 박탈지수의 활용 측면에 있다. 영국은 낙후되고 건강 수준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근거로서 지역박탈지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에 대한 자원 배분의 기준을 ‘필요(need)’에 두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원 배분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박탈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박탈지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연구들이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지역의 박탈 수준이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사망 수준, 기대여명 수준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적절한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현황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제고할 만한 장·단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수치로 발표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박탈지수와 관련한 영국의 사례는 현황 증거에 근거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현황의

적절한 측정과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동진. (2017).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의 대응 정책 분석과 함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제251호.
- 김동진, 이소영, 기명, 김명희, 김승섭, 김유미 등. (2013).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진, 이영아. (2017). 지역박탈에 따른 회피가능사망을 격차와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40호.
- 김동진. (2017).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국의 대응 정책 분석과 함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제251호.
- 김명희. (2002). 사회경제적 요인과 대사 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다수준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손미아. (2002). 직업, 교육수준 그리고 물질적 결핍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35(1), 76-82.
- 신영전, 윤태호, 김명희, 조홍준, 김미경, 유원섭 등. (2009).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 서울: 보건복지부.
- 신호성, 이수형, 추장민. (2009). 표준화사망비와 지역결핍지수의 상관관계: 지역사회 통합결핍지수 개발. J Prev Public Health, 42(6), 392-404.
- 이영아. (2009).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현황 및 평가. 국토정책 brief, 제248호.
- 이영아. (2012). 영국의 지역 박탈지수. 지역과 발전 vol.9.
- 정백근, 정갑열, 김준연, 문옥륜, 이용환, 홍영승, 윤태호. (2006).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의 물질적 결핍수준과 15-64세 인구 표준화사망비의 관계. 예방의학회지, 39(1), 46-52.
- 추장민, 박정임, 전성우, 배현주, 신지영, 임유라 등. (2007).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 Choi, M. H., Cheong K. S., Cho B. M., Hwang I. K., Kim C.H., Kim. M. H., et al. (2011). Deprivation and Mortality at Town Level in Busan, Korea: An Ecological Study.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4(6), 242-248.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7).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07.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1).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0.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a).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5: Statistical Release.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b).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5: Research Report.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c).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5: Technical Release.
-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0). Indices of Deprivation 2000.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4). The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04.
- Townsend, P. (1987). Deprivation, J Social Policy 16(2), 125-146.